'더 게임' 기대되는 배우들 배우 옥택연(왼쪽부터), 이연희, 임주환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수목드라마 '더 게임: 0시를 향하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 게임'은 22일 오후 8시 55분 첫방송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살림하는 남자들(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6:00 설날특선 SBS 스페셜 7:00 모닝와이드 7:35 모닝와이드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설날특집 애니멀 스토리 10:30 SBS 뉴스 10:40 설날특집 맛남의 광장 스페셜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몰랑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10 설 특선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 3:공룡시대〉 17:20 그림을 그려요 19:00 스파이더맨 20:00 머털도사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우영팟(재) 15:50 팔도밥상(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2:05 제보자들(재) 13: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필 샐러드(재) 17:00 거리의 만찬(재)	12:00 12 MBC 뉴스 12:20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스페셜 13:20 헬로키즈 동물교실2(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호기심대장 카토 15: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20 나쁜 사람(재) 17:00 5 MBC 뉴스 17:25 언니네 쌀롱 스페셜	12:30 런닝맨(재) 13:55 SBS 뉴스 14:05 미운 우리 새끼(재) 16:05 낭만닥터 김사부2(재) 17:25 설날특선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 21: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 22:10 개는 훌륭하다 1부 22:45 개는 훌륭하다 2부 23:40 e스포츠 특집 더 드리머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스트레이트 21: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부 22:3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2부 23:10 언니네 쌀롱 1부 23:50 언니네 쌀롱 2부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설날특집 생활의 달인 21:40 낭만닥터 김사부 2 22:20 낭만닥터 김사부 2 23: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8:00 내 별명은 대토령 9:30 KCTV다큐스페셜 10:30 취미로 먹고 산다 12:00 KCTV 씨네한수 12:40 KCTV 시청자세상 13:10 아슈토크 팡 15:10 스포츠 당구 더 레슨 17:00 KCTV 뉴스 18:00 취미로 먹고 산다 19:00 KCTV 뉴스 7 20:00 KCTV다큐스페셜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남보원 조문 줄이어… "보고 싶습니다"

빈소 찾은 후배들 "애도" SNS에도 추모글 이어져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원로 코미디언 남보원(본명 김덕용)의 빈소에서 엄용수 대한민국방송코미디협회장(오른쪽)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별세한 '넘버원' 코미디언 고(故) 남보원(본명 김덕용) 빈소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22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에 마련된 빈소에는 선우용녀, 임하룡, 이홍렬, 하춘화, 이경규, 이경실, 김준현, 조세호 등 후배 연예인들이 방문해 고인을 배웅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전날엔 한국방송코미디협회장이자 고인과 각별한 선후배 사이였던 개그맨 엄용수, '갈갈이' 박준형과 정종철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홍렬은 조문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남보원 선생님은 관객뿐 아니라 연기자도 즐겁게 해주셨다"면서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애도했다.

하춘화 또한 "나보다 훨씬 어른이지만 천진난만하고 재밌는 말도 많이 해주셨다. 너무 이르게 돌아가신 것 같아 참 많이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1985년 평양 공연을 하러 고인과 함께 방북한 특별한 경험도 있는 그는 "엄청 긴장하고 갔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사를 같이했다"고 돌아봤다.

까마득한 후배 개그맨 김준현은 "막내 때 행사 나와 뵈면 불러서 앉히고, 한마디라도 꼭 해주셨다. 정말 푸근한 선생님이셨다"고 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 코미디협회, 한국성우협회, 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등 연예계 단체들은 화환과 조기를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추모도 이어졌다.

김선근 KBS 아나운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늘 남보원 선생님이었다"면서 "천국에서의 원맨쇼도 선생님답게 유쾌하고 즐거울 것이라 믿는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남희석은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진짜 코미디언. 선생님 뵙고 반성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고인의 영결식과 발인은 23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며, 오후 1시 50분 양재동 추모공원으로 고인을 옮겨 화장한다. 장지는 남한산성에 있는 선영이다. 연합뉴스

'기생충' 흑백판 2월말 개봉 봉준호 "고전 영화에 로망"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흑백판으로 찾아온다.

배급사 CJ ENM에 따르면 '기생충' 흑백판은 22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올해 제49회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며, 2월 말에는 국내 정식 개봉한다.

CJ ENM 관계자는 "봉 감독과 홍경표 촬영감독이 한 장면 한 장면씩 콘트라스트(대조)와 톤을 조절하는 작업을 거쳤다"면서 "컬러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영화"라고 말했다.

평소 고전 흑백영화에 로망이 있던 두 사람은 '마더' 흑백 버전도 작업한 바 있다.

'기생충'은 내달 9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상, 국제영화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심은경,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여우주연상

日 영화제서 연이은 수상

배우 심은경(사진)이 일본 내 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2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AND에 따르면 심은경은 영화 '신문기자'로 제74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일본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는 마이니치신문과 스포츠닛폰 등이 주최하는 영화상으로 1946년에 만들어졌다.

앞서 제43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여우주연상과 제34회 다카사키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도 전해졌다.

일본 아카데미상에서는 영화 '신문기자'로, 다카사키 영화제에서는 영화 '블루아워'로 상을 받았다.

'신문기자'는 일본 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을 통해 국가와 저널리즘의 이면을 비판한 영화로, 심은경은 주인공인 기자 요시오카 에리카 역을 맡아 일본어로 연기했다.

'블루아워'는 광고디렉터로 일하는 스나다가 할머니 병문안을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로 심은경은 주인공인 스나다의 친구 키요우라를 연기했다. 연합뉴스